

우리나라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신현철

순천향대학교 생명시스템학과 교수, 식물분류학 전공
shinhy@sch.ac.kr

기호철

서울대학교 생물인류학 및 고병리연구실 연구원, 한문고전 전공
hochulki@naver.com

홍승직

교신 저자, 순천향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중국산문 전공
wobumang_nine@hotmail.com

I. 머리말

II. 분류학적 실체 규명

III.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IV. 삼의 국내 분포 여부

V. 국내에 분포하는 삼에 대한 문헌 자료

VI. 국내에서 사용한 '삼'의 분류학적 실체

VII. 맺음말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많은 고전에는 식물분류학적 정보가 상당히 많이 실려 있다. 특히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많은 ‘물명류’ 저술이 쏟아져 나왔는데, 기존 성리학에서 소홀하게 여긴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관심이 실학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높아짐에 따라, 사물의 정확한 이름을 규명하는 물명(物名)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된 결과였다.¹⁾ 예를 들어, 유희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물명고(物名考)』의 ‘무정류(無情類)’ 항목에는 식물 관련 용어 및 식물명이 811개가 나온다.²⁾

유희의 『물명고』에 실려 있는 사례로, 참나무 또는 떡갈나무 등으로 번역되는 ‘작(柞)’이라는 항목에는 “종류가 매우 많아 세세하게 구분하기가 힘들다(種類甚多不可細分言之)”라는 설명이 있는데, 참나무속(*Quercus*) 식물들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힘들기에 이러한 설명이 붙은 것으로 추정된다.³⁾ 그리고 소나무 생식기관을 의미하는 ‘송화(松花)’는 ‘송황(松黃)’으로, ‘솔방울’은 ‘송방(松房)’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 밖에 소나무와 잣나무를 잎의 수를 가지고 구분하였는데, “잣나무(果松)는 소나무(松)와 유사하나, 잎이 5개인 점이 다르다(果松似松而五粒)”라고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참나무 종류들이 만들어내는 각두를 ‘도토리각지(橡椀)’로 표기하였다.

최근 고전에 근거한 전통지식에 대한 재검토가 생물유전자원의 이익공유와 산업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⁴⁾, 국내에서도 고전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거나⁵⁾, 고전들을 한글로 번역한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즉, 정약용이 쓴 『아언각비(雅言覺非)』⁶⁾, 정학유가 쓴 『시명다식(詩名多識)』⁷⁾, 그리고 서유구가 쓴 『임원경

1)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제17권(2009), 175-208쪽; 홍윤표, 「유희의 물명고」, 『어문연구』 제28권(2000), 277-304쪽.

2) 신현철, 「物名考의 語彙 考察」, 『한국언어문학』 제25권(1987), 41-66쪽.

3) 여찬영, 「나무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어문학회지』 제74권(2001), 21-43쪽.

4) 김현·송미장,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월드사이언스, 2011).

5) 신현철·홍승직·기호철,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생물자원 실체 규명-樗의 번역 사례와 한자 식물명 번역에 있어서 제안」,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국립산림과학원, 2013), 83-98쪽.

6) 정약용 저, 정해연 역, 『아언각비, 이담속찬』(현대실학사, 2005).

제지(林園經濟志)』의 「만학지(晩學志)」⁸⁾ 등이 한글로 번역되었다. 이 밖에도 고전에 나오는 식물을 대상으로 실제 규명 연구도 수행되었다.⁹⁾

그러나 고전을 번역한 일부 내용을 보면, 식물의 실체와 식물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 『시경(詩經)』 주남(周南) 세 번째 시에 나오는 권이(卷耳)라는 식물을 들 수 있다. 시에서는 ‘권이를 캐도 캐도 한 바구니에 가득 차지 않네(采采卷耳 不盈傾筐 嗟我懷人 寘彼周行)’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권이를 도꼬마리라는 식물로 번역하고 있는데, 도꼬마리는 주로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1m까지 자라는 식물로, 잎 길이만도 5-15cm에 달한다. 따라서 도꼬마리의 아주 어린 싹을 캐지 않는 한, 조금이라도 자란 도꼬마리를 뜯을 경우 바구니에 금방 차게 될 것이다. 최근 권이를 도꼬마리가 아닌 점나도나물속에 속하는 식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이 식물은 이른 봄에 자라는 식물로 키는 최대 30cm에 달한다.¹⁰⁾

최근 번역되어 출판된 『임원경제지』 「만학지」 권4 ‘삼(杉)’의 설명을 보면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로는 일본 원산으로 남쪽 지방에서 심고 있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Thunb. ex L. f.) D. Don)라고 하면서도 설명에는 “관북지방에서 많이 생산된다. [...] 남쪽에서 생산된 것은 그다지 크게 자라지 못한다”¹¹⁾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삼나무는 현재 남쪽 지방에서만 재배하고 있을 뿐¹²⁾ 관북지방에서는 자라지 않고 있어 삼나무가 지니는 특성이 고전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전 속에 나오는 식물들의 분류학적 실체¹³⁾를

7) 정학유 저, 허경진·김행태 역, 『시명다식』(한길사, 2007).

8) 서유구 저, 박순철·김영 역, 『임원경제지』, 「만학지 02」(소와당, 2010).

9) 홍승직·신현철,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를 통한 《시경》의 새로운 이해」, 『중국어문논총』 제15집(1998), 281-295쪽; 신현철,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 규명 필요성-산수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3호(2014), 185-208쪽.

10) 朱春慧, 「《詩經》草本植物研究」, 國立台南大學 碩士學位論文(2011), 63쪽.

11) 서유구 저, 박순철·김영 역, 앞의 책, 「만학지 02」, 39쪽. “產於關北多, [...] 其產南地者, 不甚長大.”

12) 이우철,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아카데미서적, 1996), 38쪽.

13) 분류학적 실체(實體)란 식물 분류 단계에서 과(科)나 속(屬)이 아닌 종(種) 수준의 구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나무나 참나무는 모두 속 수준에서 대나무속과 참나무속에 속하는 식물을 총칭하는 식물 명칭이며, 난(蘭) 또는 난초(蘭草)는 난과(蘭科) 식물에 속하는 식물을 총칭하는 과 수준에서 총칭하는 식물 명칭이다. 한자(漢字)로 기록된 모든 식물 이름을 종 수준에서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종 수준에서 꽃 색, 꽃잎 율합 여부, 잎 형태, 잎 숙존성, 줄기 성장형 등 여러 가지 형질을 이용하여

규명하여 우리 고유한 생물자원 이용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흔히 삼나무로 번역되는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분류학적 실체 규명

고전에 나오는 삼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고전에 설명되어 있는 삼의 형태학적·생태학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삼으로 불렸던 식물들의 실체를 규명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들에 대한 정보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임원경제지』, 『아언각비』, 『산림경제』 등을 비롯하여,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전종합 DB’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삼을 검색하였다. 이들 DB에서 인용한 내용에는 인용한 DB를 명시하였고, 따라서 이 글에서 인용한 일부 번역된 문장에는 삼의 실체와 상관없이 ‘삼이 ‘삼나무’로 되어 있다.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국내에서 발간된 고전에서 삼에 대한 설명 중 중국 문헌에 근거하는 내용은 모두 중국에 분포하는 삼에 대한 설명이므로 국내에 분포하는 삼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중국에 분포하는 삼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정약용이 저술한 『아언각비』에 있는 ‘삼’ 항목을 보면, 곽박이 설명한 『이아주소(爾雅注疏)』에 있는 내용에 따라 “곽박이 이르기를, 삼나무는 소나무와 비슷한데 강남(江南)지방에서 나고(郭璞云, 黏似松, 生江南)”라고 되어 있다.¹⁴⁾ 그런데 점(黏)은 삼의 고어이며, 강남은 중국 장강(長江) 이남 지역으로, 중하류 유역이 위도상 제주도보다 남쪽에 위치하므로, 이들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들의 특성이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들의 형태적·생태적·생물지리학적 특성과 다를 것이라 판단하였고, 따라서 한반도에 분포하는 삼의 형태학적·생태학적 특성을 규명할 때 중국 자료는 사용하지 않고

모든 식물을 구분할 수 있기에, 분류학적 실체란 곧 종 수준에서 식물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14) 정약용 저, 정해연 역, 앞의 책, 38쪽, 257쪽.

참고만 하였다.

Ⅲ.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

1. 중국에 분포하는 삼

중국에서는 구과식물문(Coniferae)에 속하는 소나무강(Pinopsida)과 측백나무강(Cupressopsida)을 합하여 송삼강(松杉綱, Coniferopsida)으로 부르고 있었으며, 특히 낙우송과(Taxodiaceae)를 삼과(杉科)로 부르고 있었다(표1). 이 밖에 개비자나무과(Cephalotaxaceae)를 삼첨삼과(三尖杉科)로, 주목과(Taxaceae)를 홍두삼과(紅豆杉科)로 부르는 등 3개 과 이름에 삼(杉)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남양삼나무속(*Araucaria*)을 남양삼속(南洋杉屬)으로 부르는 것을 비롯하여 *Agathis*를 견량삼속(見亮杉屬), *Keteleeria*를 유삼속(油杉屬), 전나무속(*Abies*)을 냉삼속(冷杉屬)으로 부르는 등 18개 속의 이름에 삼이 들어가 있었다. 이 밖에 넓은잎삼나무 [*Cunninghamia lanceolata* (Lamb.) Hook.]를 삼목(杉木)으로 부르는 등 95종의 식물 이름에 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다.¹⁵⁾

그런데 종 수준에서 삼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95종의 식물 중, 삼한 글자로만 부르는 식물은 『중국식물지(中國植物志)』에서 넓은잎삼나무, 즉 삼목 한 종이었고, 삼목을 정삼(正杉)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¹⁶⁾ 한편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삼을 사목(沙木)으로도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¹⁷⁾, 사목은 넓은잎삼나무의 별칭으로 『중국식물지』에 기록되어 있었다.¹⁸⁾ 또한 최근 중국의 민속과 관련된 식물을 정리하면서 삼목의 분류학적 실체를 넓은잎삼나무로 파악하였다.¹⁹⁾ 따라서 중국에서 삼 또는 삼목으로 부르는 식물은 넓은잎삼나무로 간주하였다. 넓은잎삼나무는 동경 102-122°, 북위 22-34°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²⁰⁾,

15) 中國科學院中國植物志編輯委員會, 『中國植物志』 第7卷(科學技術社, 1978).

16) 위의 책, 285쪽.

17) 정약용 저, 정해엽 역, 앞의 책, 38쪽.

18) 中國科學院中國植物志編輯委員會, 앞의 책, 285쪽.

19) 裴盛基·淮虎銀, 『民族植物學』(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7), 104쪽.

표1-『중국식물지』에 수록된 식물 이름 중 삼(杉)이 포함된 식물 현황

목(目, order)	과(科, family)	속(屬, genus)	종(種, species)	
송삼목 (松杉目, Pinales)	남양삼과(南洋杉科, Araucariaceae)	남양삼속(南洋杉屬, <i>Araucaria</i>)	남양삼(南洋杉) 외 2종	
		견량삼속(見亮杉屬, <i>Agathis</i>)	견량삼(見亮杉) 1종	
	송과(松科, Pinaceae)	유삼속(油杉屬, <i>Keteleeria</i>)	해남유삼(海南油杉) 외 8종	
		냉삼속(冷杉屬, <i>Abies</i>)	삼송(杉松) 외 19종	
		황삼속(黃杉屬, <i>Pseudotsuga</i>)	황삼(黃杉) 외 5종	
		철삼속(鐵杉屬, <i>Tsuga</i>)	철삼(鐵杉) 외 3종	
		은삼속(銀杉屬, <i>Cathaya</i>)	은삼(銀杉) 1종	
		운삼속(雲杉屬, <i>Picea</i>)	운삼(雲杉) 외 17종	
		낙엽송속(落葉松屬, <i>Larix</i>)	홍삼(紅杉) 외 5종	
		삼과(杉科, Taxodiaceae)	삼목속(杉木屬, <i>Cunninghamia</i>)	삼목(杉木) 외 1종
			대만삼속(台灣杉屬, <i>Taiwania</i>)	대만삼(台灣杉) 외 1종
			유삼속(柳杉屬, <i>Cryptomeria</i>)	일본유삼(日本柳杉) 외 1종
		낙우삼속(落羽杉屬, <i>Taxodium</i>)	낙우삼(落羽杉) 외 2종	
		거삼속(巨杉屬, <i>Sequoiadendron</i>)	거삼(巨杉) 1종	
		북미홍삼속(北美紅杉屬, <i>Sequoia</i>)	북미홍삼(北美紅杉) 1종	
		수삼속(水杉屬, <i>Metasequoia</i>)	수삼(水杉) 1종	
삼첨삼목(三尖杉目, Cephalotaxales)	삼첨삼과(三尖杉科, Cephalotaxaceae)	삼첨삼속(三尖杉屬, <i>Cephalotaxus</i>)	삼첨삼(三尖杉) 외 3종	
홍두삼속(紅豆杉目, Taxales)	홍두삼과(紅豆杉科, Taxaceae)	홍두삼속(紅豆杉屬, <i>Taxus</i>)	홍두삼(紅豆杉) 외 3종	
		백두삼속(白豆杉屬, <i>Pseudotaxus</i>)	백두삼(白豆杉) 1종	
		수화삼속(穗花杉屬, <i>Amentotaxus</i>)	수화삼(穗花杉) 외 2종	
3목(目)	5과(科)	20속(屬)	92종(種)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 Fung, L. E. "Cunninghamia lanceolata(Chinese fir), a study of its potential as a commercial plantation species in New Zealand," A thesis of PhD. in the University of Canterbury(1993), p. 5.

2. 일본에 분포하는 삼

일본에서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L. fil.) D. Don]를 삼으로 부르고 있었는데²¹⁾, 연대 미상의 『본초도회(本草図彙)』 제25권 향목류(香木類) 상(上)에는 삼의 그림과 함께 옛날 이름은 마키(マキ)이고, 일본명은 스기(スギ)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 밖에 광엽삼(廣葉杉)이라는 이름으로 넓은잎삼나무[*Cunninghamia lanceolata* (Lamb.) Hook.]를 지칭하고 있었는데, 중국 원산으로 에도시대에 일본에서 도입되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²²⁾, 중국 원산으로 1949년 일본으로 들어온 메타세쿼이아(*Metasequoia glyptostroboides* Hu et Cheng)를 수삼(水杉)이라고 부르고 있었다.²³⁾ 이를 제외하고는 삼이 포함된 식물 이름은 검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삼(杉)이라는 한자로 부르는 식물은 삼나무로 간주하였다. 삼나무는 일본 고유종으로 알려져 있어²⁴⁾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삼의 국내 분포 여부

중국과 일본에서는 삼(杉)이라는 한자로 넓은잎삼나무와 삼나무를 지칭하고 있었으나, 이 두 식물 모두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고, 도입되어 식재되고 있을 뿐이다. 삼나무는 1910년대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남부 지방에서 주요 조림수종으로 인정받아 조림되어 왔으며²⁵⁾, 제주도에서는 1936년부터 조림이 시작되었다.²⁶⁾ 한편 넓은잎삼나무는 중국에서 도입하여 관상용으로 식재하고 있으나²⁷⁾, 도입연도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21)堀田滿・緒方健・新田あや・星川清親・柳宗民・山崎耕宇, 『世界有用植物事典』(平凡社, 1989), 332쪽.

22)佐竹義輔・原寛・亓理俊次・富成忠夫, 『日本の野生植物, 木本 I』(平凡社, 1989), 15쪽.

23)堀田滿・緒方健・新田あや・星川清親・柳宗民・山崎耕宇, 앞의 책, 679쪽.

24) Matsumoto Y, H. et al., "Mapping of Japanese Cedar (*Cryptomeria japonica*) Forests Vulnerable to Global Warming in Japan,"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Vol. 10(2006), pp. 181-188.

25) 임행진, 「삼나무 산지 간 생장비교」, 『순천대학논문집』 제4권(1985), 59-63쪽.

26) 진현오·전상근, 「삼나무 산지 간 생장형질 및 영양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편』 제23권(1994), 727-741쪽.

따라서 고전에 나오는 삼은 넓은잎삼나무나 삼나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삼이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과거 기록들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는 우리 고전에 등장하는 삼이라는 식물이 중국과 일본에 분포하는 삼과는 다른 식물임을 의미하는 증거일 것인데, 『조선왕조실록』과 정약용의 『아언각비(雅言覺非)』, 유성룡이 저술한 『서애집(西厓集)』, 그리고 송시열의 『택당집(澤當集)』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1. 『조선왕조실록』 자료

명종이 즉위한 해인 을사년(1545) 11월 8일자 기록 ‘군기시제조가 중국에서 전수한 대포가 우리나라 것만 못함을 아뢰다’ 항목에 “군기시제조가 아뢰기를, 오늘 중국 사람에게서 화포의 법을 전습하여 모화관에서 쏘아보았으나 별로 맹렬한 힘이 없어 40보 밖에 표적을 세우고 쏘았는데 모두 맞지 않았습시다. 우리나라의 포는 한 발이 방패에 맞았는데 도로 튕기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는 삼목(杉木)의 재를 쓰기 때문에 빠르고 맹렬한데 여기서는 버드나무(柳木) 재를 쓰기 때문에 맹렬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또 그 기계가 매우 둔하여 우리나라 포만 못합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²⁸⁾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중국에서 말하는 삼이 국내에는 자라지 않아, 그 대용품으로 버드나무를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2. 개인 문집

정약용은 『아언각비』의 ‘삼’ 항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 알고 익가나무로 생각하였고, 이어 진삼(眞杉)을 일컬어 회(檜)라 하니, 한 번 잘못되니 두 번 잘못되게 했으나, 바로잡을 때가 없었다. 삼목(杉木)은 삼(黏)으로도, 삼(杉)으로도 쓰는데, 사목(沙木)이라고도 부른다”²⁹⁾라고

27) 이우철, 앞의 책(1996), 38쪽.

28) “軍器寺提調啓曰. 今日唐人處傳習火砲, 放于慕華館, 別無猛烈之氣, 立標四十步而放之, 皆不中, 我國之砲, 一中防楯而還退. 唐人等云. 中原用杉木灰, 故迅烈, 而此以柳木灰, 故不至猛發云. 且其器械鈍甚, 不如我國之砲. 傳曰. 知道.”(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29) 정약용 저, 정해염 역, 앞의 책, 257쪽. “東人誤以爲弋檜(익가나무), 乃以眞杉稱之爲檜, 一誤再誤, 無時可正. 杉木作黏, 亦音杉, 一名沙木.”

설명하였다. 또한 “삼(杉)이란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회(檜)인 것이다. 관재로는 삼과 같지 못하다. 그런데 유명한 물건을 한 번 잘못하여 다만 배를 만드는 재목으로만 알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³⁰⁾라고 설명하여, 우리나라에서 삼이라고 부르는 식물은 회라고 주장하였다. 즉,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삼은 중국에서 부르는 삼과는 다른 식물임을 암시하였다.

또한 유성룡이 저술한 『서애집』 권(卷) 13 잡저(雜著), ‘장례에 관한 치관(治棺)’ 항목과 송시열이 저술한 『택당집』 별집(別集) 제16권 잡저 ‘가계’ 항목에는 장례식에 필요한 관을 만들 때 주자가 말한 삼나무로 만든 관을 최고로 간주하나, 국내에는 이 나무가 없다는 설명이 나온다.

즉, 유성룡은 “삼(杉)이 어떤 나무인지 확실하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관을 짤 때 신분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송관을 썼다. 삼나무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 삼이 우리나라에서는 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나기는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쓰지 않게 된 것인가? 애석하다”³¹⁾라고 말하였는데, 삼이 국내에서 자라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송시열은 “근래에 권세 있는 귀한 집안에서는 관재(棺材)로 삼목(杉木)을 쓰고 있는데, 그 나무는 북청(北靑) 이북의 극한지(極寒地)에서 나오고 있으니, 중원(中原)에서 말하는 삼목은 아니라고 하겠다. [...] 그런데 지금 삼목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이것과는 전혀 비슷하지가 않다. [...] 나머지 마침내 관북(關北)지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라고 하겠다”³²⁾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관북지방에 있는 나무는 중국에서 부르는 삼나무가 아님을 주장한 것이다.

30) 위의 책, 257쪽. “杉者俗之所謂檜也, 棺材莫如杉, 而名物一誤, 但知爲船材, 惜哉.”

31) “按杉, 未詳何木. 我國爲棺槨, 上下通用松板, 不見用杉. [...] 豈杉不產於我國, 雖產而人無知者, 故遂廢而不用耶, 爲可惜也.”(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2) “近來貴勢之家, 用杉木棺, 其木出自北靑以北五寒之地, 非中原所謂杉木也. [...] 今所稱杉木, 則全不相近. [...] 遂爲關北巨弊, 可嘆哉.”(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V. 국내에 분포하는 삼에 대한 문헌 자료

삼이 중국과 일본에만 분포하던 식물이며 국내에는 이들 지역으로부터 도입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국내에 분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일부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은 우리 고전에 지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실제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삼을 검색하면 2014년 7월 10일 현재 2,285건이 검색되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사람 이름으로 검색되거나 배를 만드는 재료로서 검색된 것도 있고, 이 밖에 일본에서 관찰한 삼과 이와 관련된 물건 등의 이름으로 검색된 것도 있으나, 많은 사례가 식물과 관련된 내용에서 검색되었다. 한국고전종합 DB 및 기타 자료에서 삼의 분포 지역과 형태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포 지역

우리나라 고전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삼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삼의 분포지를 백두산 지역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현일이 쓴 『갈암집(葛庵集)』 제20권 ‘기(記)」「갈암기(葛庵記)」에는 관동지방의 영양(英陽) 근처 수비(首比) 지역을 설명하면서, “나무로는 단풍·삼·가래·옷 등이 풍요롭게 있고”³³⁾라고 기술하여, 이 지역에도 삼이 자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만학지」 권4 ‘삼’ 항목에서 분포지로 “관북지방에서 많이 생산된다. […] 남쪽에서 생산된 것은 그다지 크게 자라지 못한다”³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1764년 박종이 쓴 『당주집(鎗洲集)』의 「백두산유록(白頭山遊錄)」에는 “5리를 가자 송삼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는데, 온종일 나무 그늘 속을 가야 했다. […] 평원은 우거지고 삼(杉)과 회(檜)가 삼밭 같았다”³⁵⁾라고 하여, 백두산에 삼이 뺄뺄하게 자라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계산기정(薊山紀程)』의 제1권 ‘출성(出城)’에는

33) “木有楓杉梓添之饒.”(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4) 서유구 저, 박순칠·김영 역, 앞의 책, 39쪽. “産於關北多. […] 産南地者, 不甚長大.”

35) “行五里, 松杉蔽天, 盡日在樹陰中行. […] 平原莽濶, 杉檜如麻.”

황해도 봉산 지역에도 삼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싱그런 푸르름 중간에 전나무와 삼나무 그늘져 있는데”³⁶⁾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덕무가 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3권 영처문고일(嬰處文稿一), 기(記) 「북한산(北漢山) 유람기」에는 “성문의 아래는 지형이 약간 낮고 단풍나무(楓)·남나무(楠)·소나무(松)·삼나무(杉)가 수없이 많으며, 텅 빈 골짜기에는 메아리가 잘 울린다”³⁷⁾라고 되어 있어 서울 인근 북한산에도 삼이 자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전북 부안에 있는 묘암사(妙巖寺)에서 놀면서 “고사(古寺)에는 부질없이 아름답리 삼나무만 보이네”³⁸⁾라고 하여, 묘암사 근처에 삼이 자라고 있음을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文集)』 제17권 「유묘암사, 차판상홍서기두위금엄시운(遊妙巖寺, 次板上洪書題題位金巖詩韻)」에서 노래하였다.

김종직은 지리산에 다녀온 다음 『속동문선(續東文選)』 제21권 ‘녹(錄)’ 「두류기행록(頭流記行錄)」이라는 기행문을 쓰면서 “이때 구름과 안개가 다 사라지고 햇살이 내리비추자, 동서의 계곡들이 모두 환히 트이였으므로, 여기저기를 바라보니, 잡수(雜樹)는 없고 모두가 삼(杉), 회(檜), 소나무(松), 남(楠)이었는데, 말라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이 3분의 1이나 되었고, 간간이 단풍나무가 섞이어 마치 그림과 같았다. 그리고 등성이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과 안개에 시달리어 가지와 줄기가 모두 왼쪽으로 쏠려 주먹처럼 굽은 데다 잎이 거세게 나부끼었다”³⁹⁾라고 기록하여, 삼이 지리산에도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제주도에도 삼이 분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있는데, 황윤석이 쓴 『이재난고』에는 “삼(杉)은 삼(榧)으로도 쓴다. [...] 삼은 전나무(栝木)라고 하였다. 지금 제주도와 관동에서 많이 난다. 경성에 옮겨온 것은 가지가 많고 줄기는 온통 붉은색이다. 예전에 일반적으로 적목(赤木)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삼을 말한 것이다”⁴⁰⁾라고 되어 있다.

36) “空翠中間蔭檜杉.”(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7) “多楓楠松杉，曠然谷易應.”(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8) “寺古空看合抱杉.”(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39) “時雲霧消散，日脚下垂，山之東西，谿谷開豁，望之無雜樹，皆杉檜松栝，槁死骨立者，居三之一，往往間以丹楓，正如圖畫，其在岡脊者，因於風霧，枝幹皆左靡拳曲，雲髮飄颻云.”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스토리테마파크에서 ‘유두류록(遊頭流錄)’으로 검색하여 인용함.

40) “杉，亦作榧。[...] 栝木也。今濟州及關東多產，移入京城者，亦多枝幹渾赤，故俗呼赤木，卽所謂杉也。”

이상을 종합하면, 백두산을 비롯하여 관북지방에서부터 시작하여 황해도를 거쳐 북한산과 전북 부안과 지리산 일대, 그리고 남쪽 섬 제주도에서도 삼을 관찰한 기록이 발견됨을 알 수 있어, 삼은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지,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4년(1622 壬戌/명 천계(天啓) 2年) 5月 1日(丙申)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감군이 요구한 병마, 군량, 배에 대해 어려운 사정 밝힐 것을 아뢰다’에는 “평안도는 바다와 접한 지역이라 소나무나 삼목(杉木)이 생산되는 곳이 전혀 없어서 배가 모두 작디작은 어선뿐이다”⁴¹⁾라고 되어 있어, 평안도 해안 지역에는 삼이 자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제11권 의종 장효대왕(毅宗莊孝大王) 을유 19년(1165), ‘송 건도(乾道) 원년·금 대정 5년 편’에는 “한정과 김돈중 등이 절 북쪽 산이 빨강게 벗겨져 초목이 없음을 보고는, 부근의 백성을 동원하여 송백(松柏)·삼회(杉檜)와 기화이초를 심고”⁴²⁾라는 설명이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삼을 우리나라에서 식재했음을 알 수도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정조 27권 13년(1789 己酉/청 건륭(乾隆) 54年) 2月 13日(庚子) 첫 번째 기사 ‘영릉 전알에 수고한 교하군에게 세금·환곡의 탕감을 명하고, 장릉에서 작헌례를 행하다’에는 “선왕조 신해년에 파주(坡州)에서 본 능으로 이장하고서, 효묘(孝廟)께서 옛 능소에다 손수 소나무와 삼나무를 심으셨던 고사를 따라 이 나무를 심으셨던 것인데 지금 저렇게 울창하다. 만약 이 나무에 표지를 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⁴³⁾라는 기록이 있어 고려시대 이후 삼을 식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우리 고전 중 일본을 다녀와서 기록한 견문록과 같은 자료, 예를 들어 『병자일본일기(丙子日本日記)』나 『봉사일본시문견록(奉使日本時聞見錄)』, 『동사록(東槎錄)』,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제65권 「청령국지 2(淸嶺國志二)」 등에도 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일본에서 자라던 식물일 뿐, 국내에서 자라던 식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넓은잎삼나무와 일본의 삼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자라지 않았던 것으

41) “平安道濱海之地，絕無松杉產處，船隻皆小小漁艇。”(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42) “靖及敦中等，以寺之北山，童無草木，聚傍民，植松柏杉檜，奇花異草。”(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43) “先朝辛亥，自坡州遷封本陵，遵孝廟手種松杉於舊陵故事而行焉，至今鬱然，若不表識，後人何知。”(조선왕조실록 DB에서 인용)

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삼의 특성

옛날 문헌에 기록된 삼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약용은 『아언각비』 삼 항목에서 “삼(杉)은 층을 거듭하면서 바르게 자라 오르는 나무(杉者, 層累直上之木也)”라고 하였고, 이 밖에 회 항목에서는 “柏의 잎 松의 몸매는 곧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잎이 실같이 되어 있는 삼(杉)이다(按栢葉松身, 乃今俗呼爲絲杉者也)”라고 설명하였다.⁴⁴⁾ 이는 삼이 소나무와 비슷하여 선형으로 된 잎을 지니고, 곧추서서 자라며 가지가 층을 이루는 교목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유구는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만학지(晩學志)」 권4 ‘삼(杉)’ 항목에서 “큰 나무는 널 재료로 사용한다. 등에 종기가 조금 나왔을 때 그 기름을 바르면 기이한 효과가 있다. 잎을 따서 차를 만들면 맛이 쓰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大樹爲柅材, 背疽微發, 塗其脂, 有奇効, 採葉作茶, 味苦, 亦能消穀)”라고 설명하였다.⁴⁵⁾ 그리고 회(檜)를 설명하면서, “그 열매는 주렁주렁 달리는데 삼나무 열매와 같으나 가시가 없다(似杉實無刺)”라고 기술하였고, 또한 “잎은 뾰족하고 단단하여 측백나무 잎과 비슷하고 삼나무 잎과는 조금 비슷하다(葉似栢而尖硬, 微似杉)”라고 하였다. 이 밖에 삼과 비슷한 식물들을 삼류(杉類)라고 지칭하였는데, 이러한 삼나무 종류로는 노가자(老柯子)가 있으며, 적목(赤木)과 자단(紫檀) 두 종류는 적삼(赤杉)이라고 불렀다.⁴⁶⁾

김종직은 지리산에 다녀온 다음 『속동문선(續東文選)』 제21권 ‘녹(錄)’ 「두류기행록(頭流記行錄)」이라는 기행문을 쓰면서 “바라보니 잡수(雜樹)는 없고 모두가 삼(杉), 회(檜), 소나무(松), 남(栢)이었는데, 말라 죽어서 뼈만 앙상하게 서 있는 것이 3분의 1이나 되었고, 간간이 단풍나무가 섞이어 마치 그림과 같았다. 그리고 등성이에 있는 나무들은 바람과 안개에 시달리어 가지와 줄기가 모두 왼쪽으로 쏠려 주먹처럼 굽은 데다 잎이 거세게 나부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삼이 그 당시에도

44) 정약용 저, 정해엽 역, 앞의 책, 38쪽.

45) 서유구 저, 박순철·김영 역, 앞의 책, 39쪽.

46) 위의 책, 39쪽.

지리산 능선 부위에서 왼쪽으로 쏠려 있는 고사목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희는 『물명고』에서 삼에 대해 “있는 단단하고 조금 납작하며, 가지처럼 줄기에 달라붙는다. 열매는 단풍나무 열매와 비슷하고, 목재는 썩지 않는다(葉硬微扁如刺附枝，結實如楓實，爲材不腐)”라고 설명하였다.

3. 삼의 국명

고문헌에서 삼의 국명과 관련된 자료도 검색되었는데, 특히 옛날에 발간된 사전류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연대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빠른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1533년, 즉 중종 28년 11월 4일 ‘납효의 건’에 삼목을 ‘伊叱可木’으로 부른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 신이 경사에 갈 때 잇가나무(伊叱可木)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오라는 전교가 계셨는데, 경사에 도착하여 물었더니, 아는 이가 없었고 서반들 말로는 그것이 필시 삼목(杉木)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⁴⁷⁾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즉, 삼을 우리말로 ‘伊叱可木’, 즉 ‘叱’은 오늘날 사이시옷이기에 잇가목이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다음으로 조선 중종 시기인 1506년에서 1544년 사이에 어숙권이 쓴 『괘관잡기(裨官雜記)』 제4권에 “함경도 육진에 한 종류의 나무가 있어 그 잎이 회 같은데, 그 지방 사람들은 ‘伊叱櫃木’이라고 한다. 그 기름을 취하여 종기에 붙이면 곧바로 낫는데, 등창이 처음 생길 때에 더욱 효과가 있다. [...] 의관을 시켜 중국에 가서 질문하게 하였는데 어의에게 일일이 물어도 모두 무슨 나무인지 모른다 하였다”⁴⁸⁾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서유구는 관북지방에 자라는 삼은 ‘등에 종기가 조금 나왔을 때 그 기름을 바르면 기이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⁴⁹⁾ 삼을 부르는 이름으로 어숙권이 ‘伊叱櫃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伊叱櫃木’은 잇가목으로 읽을 수 있기에, 중종 때 불렀던

47) “且臣赴京時，伊叱可木，質正而來事，有傳教，到京問之，未有知者，序班等云：此必杉木也。”(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48) “咸鏡六鎮，有一種樹，其葉似檜，土人謂之伊叱櫃木，取其脂傅腫口立差，初發背尤效。 [...] 令醫官往質于中國，歷問御醫，皆云，不知其何木也。”

49) 서유구 저, 박순철·김영 역, 앞의 책, 39쪽.

잇가목이라는 이름을 ‘可’에서 ‘價’로 바꿔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로, 1543년에서 1620년 사이에 정구가 쓴 『한강집(寒岡集)』 별집 제3권 문답(問答) ‘김희원(金希元) 장생(長生)과의 문답’ 항목에 “오늘날 관북(關北)의 삼수(三水) 등지에 나오는, 속명으로 ‘잇갈木’이라 하는 나무는 목질이 매우 강하여 만일 기름을 주입할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재목이 되기 때문에 가끔 재상과 방백(方伯), 병사(兵使)들이 가져가 관을 만드는 널빤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⁵⁰⁾라고 설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잇갈木’은 앞서 자료에서 파악된 ‘伊叱可木’과 ‘伊叱價木’을 우리말과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곧 삼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76년 발간된 한자 입문서인 『신증유합(新增類合)』에는 삼이 ‘잇갈’로 번역되어 있었고, 조선 숙종(재위 기간 1674-1720) 때 홍순명이 지은 일본어 학습서인 『왜어유해(倭語類解)』에는 ‘杉’을 우리말로 쓰는 익개삼, 일본어로는 ‘스끼’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1768년에 발간된 『몽어유해(蒙語類解)』에는 ‘삼목’이 ‘익개나모’로 되어 있고, 1774년 이형상이 쓴 『병와집(瓶窩集)』에는 “익가목이 삼이다(以益價木爲杉)”라고 설명되어 있었다. 그리고 1778년 저술된 한(漢)·한(韓)·청(淸)·왜(倭)·몽(蒙) 등의 5개 언어 대역어휘집인 『방언류석(方言類釋)』에는 ‘杉木 잇개나모, 漢 杉산 木무 淸 완타하모오 蒙 추굴수모도 倭 승기노기’라고 되어 있으며, 1776년에서 1800년 사이에 발간된 『전운옥편(全韻玉篇)』에는 단순히 ‘삼’으로만 되어 있었다.

한편 정약용은 1819년 간행한 『아언각비』에서 “삼(杉)은 ‘젓나무’인데 ‘잘못하여 ‘익가나무’라고 부르고 있다(東人誤以爲弋價)”라고 주장하였고⁵¹⁾, 유희는 1820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물명고』에서는 삼(杉)을 ‘익가’라고 하였으며, 1880년대 초반에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에는 “속세에서 노가자라는 것은 삼나무 종류이다(俗號老柯者, 乃杉類也)”라고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08년 발간된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에는 ‘삼나모 삼’으로, 1909년 발간된 『사전석요상(字典釋要上)』에는 ‘수기목 삼’으로 되어 있었다.

50) “今關北之三水等處, 俗名잇갈木, 木性甚剛, 如以油灌最爲佳品, 故時或爲卿相方兵伯之所取而爲壽板, 不知是果爲眞是油杉否也.”(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51) 정약용 저, 정해엽 역, 앞의 책, 38쪽, 257쪽.

지금까지 삼과 관련된 국명으로는 잇갈, 익갈목, 익가, 익가목, 익개나무, 익가나무, 삼나무, 삼, 수기목, 伊叱可木, 伊叱櫃木, 노가자 그리고 젓나무 등이 있다. 잇갈, 잇갈목, 익가, 익가목, 익가나무, 伊叱可木, 伊叱櫃木 등은 ‘잇갈’ 또는 ‘익가’라는 단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같은 식물을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이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잇갈’이 ‘잇갈나무’의 옛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기목’과 ‘승기노기’의 경우 일본에 분포하는 삼의 일본식 발음 ‘sugi(スギ)’를 우리말로 그대로 읽은 것으로 보이며²⁾, 삼나무 또는 삼은 한자를 그대로 읽은 것으로, 노가자와 젓나무는 이들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가 한 종류의 식물을 지칭할 수도 있겠으나, 이름으로 볼 때 삼은 익가나무류, 노가자, 젓나무, 삼나무(스기 포함) 등 적어도 네 종류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양한 이름 중 『신증유합』에 삼을 ‘잇갈’로 불렀고, 이 이전에도 잇가나무로 부른 점으로 미루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삼을 처음에는 익가나무로 번역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다가 일본과의 교류가 많아지면서 삼을 일본에 분포하는 삼나무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례로 『왜어유해』에는 ‘杉’을 ‘익개삼’으로 읽고 일본어로는 ‘스기’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그리고 『전운옥편』에는 잇개나무가 사라지고 단순히 ‘삼’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즉, 초기에는 삼을 익가나무로 간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익가나무와 오늘날 삼나무를 지칭하는 승기노기 두 종류로 간주하였고, 1900년대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삼나무 한 종류만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식물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않고, 한자만으로 식물을 부르면서 파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VI. 국내에서 사용한 ‘삼’의 분류학적 실체

여러 자료에 언급된 삼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2) 이기문, 「어원 탐구 승기약탕(勝妓藥湯)」, 『새국어생활』 17권 1호(2007), 121쪽.

- ① 백두산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 제주도 등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는데, 일부 문헌에는 남쪽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분포지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리산 등지에는 고사목 형태로도 존재하고, 일본에도 분포하고 있었다.
- ② 삼을 설명할 때 현재 나자식물로 간주되나 실체는 다소 모호한 백(柏)과 회(檜)를 비교하였기에 삼 역시 나자식물일 것이다.
- ③ 줄기가 곧추서면서 층을 이루며 자라기에 교목으로 추정된다.
- ④ 잎은 실처럼 되어 있거나, 또는 단단하면서 조금 납작하고 가시처럼 줄기에 달라붙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잎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 ⑤ 열매는 단풍나무 열매와 비슷하다고 하여 날개가 달려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주렁주렁 달리며 가시는 없다. 단지 열매라는 표현이 식물학적으로 종자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열매(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⑥ 삼을 잇갈, 잇가나무, 잇갈목, 수기목, 삼나무, 노가자 등으로 번역하였다.
- ⑦ 약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차로도 마셨다.
- ⑧ 왕릉 주변에 식재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내 고문헌에 나오는 삼은 종자에 날개가 있어 바람에 의해 종자가 산포되는 나자식물 중 줄기가 곧추서서 자라기에 교목일 것이며, 분포지는 거의 우리나라 전역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처럼 국내에서 보고한 삼은 분포학적 특성으로 볼 때 중국에 분포하는 넓은잎삼나무와 일본에 분포하는 삼나무의 특성과는 다르므로 전혀 다른 식물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고문헌에 기록된 삼은 분포학적 특징, 잎의 형태적 특징, 우리말 이름 그리고 유용성 등으로 볼 때, 한 종류의 식물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1. 삼은 삼나무이다

현재 국내에서 발견된 각종 도감에 삼은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

를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삼나무는 일본에서 들여온 식물로서 백두산 근처에서는 자라지 않으므로, 고문헌에 나오는 삼은 삼나무가 아닐 것이다. 단지 고문헌 중 일본을 방문하면서 쓴 자료에 나오는 삼은 삼나무이다. 예를 들어 역관 홍우재가 일본을 다녀오면서 쓴 『동사록』 병자년 11월 19일에 쓴 글에는 “솔·수기 등 교목(喬木)이 사면을 둘러 있고 종려(棕櫚)나무가 뜰에 열을 지어 있었다(松杉喬木環擁四面。櫻栴羅庭)”라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 나오는 삼은 일본에서 자라던 삼나무이다. 또한 어숙권의 수필집인 『패관집기(裨官雜記)』 제4권에는 “국도(國都) 가운데 중산(中山)이 있는데, 왕궁을 그 위에 지었으므로 유구국 중산왕이라고 일컫는다. 산 위가 완만하고 나무는 소나무와 삼(杉)나무가 많다(國都中有中山 王宮構其上 故稱琉球國中山王 山頂平衍 其樹多松杉)”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삼 역시 삼나무이다.

2. 삼은 잎갈나무이다

관북을 포함한 백두산 지역에는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종비나무, 잎갈나무 등과 같은 나자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다.⁵³⁾ 이들 중 잎갈나무를 이갈나무, 뿔갈나무라고도 부르며⁵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잇갈이 잎갈나무의 옛말로 되어 있어, 함경도에서 잇갈목, 익가, 伊叱可木, 伊叱檜木 등으로 부른 식물은 모두 잎갈나무(*Larix olgensis* Henry)로 추정된다. 잎갈나무 잎은 모여 나며, 짧은 가지의 것은 길이 15-30mm, 너비 1-1.5mm이고 긴 가지의 것은 길이 10-15cm, 너비 2.8mm 정도이므로⁵⁵⁾ 실처럼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 숙종 53권 39년[1713 癸巳] 1월 22日(庚子) 첫 번째 기사 ‘부교리 홍치중이 북로(北路)의 폐막과 백두산의 정황에 대해 진달하다라는 항목에 “백두산과 어활강의 중간에 삼나무가 하늘을 가리어 하늘의 해를 분간할 수 없는 것이 거의 300리(里)에 달했고”⁵⁶⁾라고 할 정도로 삼이 무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잎갈나무는 백두산 일대

53) 공우석, 「한반도에 자생하는 소나무과 나무의 생물지리」, 『대한지리학회지』 제41권 (2006), 73-93쪽.

54) 이우철, 『한국 식물명의 유래』(일조각, 2005).

55) 山林廳 林業研究院, 『韓國樹木圖』(1992).

56) “白山, 漁江之間, 杉樹蔽天, 不分天日者, 殆三百里.”

에 널리 자라는 낙엽수로 커다란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⁵⁷⁾ 이 밖에도 삼의 열매(果: 엄밀히 말하면 열매가 아니라 종자)는 단풍나무처럼 생겼다고 하였는데, 잎갈나무 씨에도 날개가 달려 있다.

한편, 서유구는 “잎을 따서 차를 만들면 맛이 쓰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採葉作茶 味苦 亦能消穀)”라고 하였는데, 유득공은 우리나라 세시풍속을 정리한 『경도잡지』에서 “관청에서는 찻쌀을 볶아 물에 탄 것을 차라고 한다. 백두산에서 자라는 삼(杉)의 어린 싹을 차 대신 마셨다(官府熬糯米沈水亦謂之茶 近俗或用白頭山杉芽)”라고 기록하였다.⁵⁸⁾ 따라서 백두산 근처에 자라며, 약으로 쓰거나 차로 마신 삼은 잎갈나무로 추정된다.

3. 삼은 구상나무이다

잎갈나무는 금강산 이북에서만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⁵⁹⁾, 황해도, 북한산 및 지리산 등지에서 자라던 삼과는 다른 식물일 것이다. 특히 지리산 능선에 자라는 것으로 알려진 삼의 경우, 지리산 능선에는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사스래나무 그리고 잣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는데⁶⁰⁾, 옛날 문헌에 ‘잡수(雜樹)는 없고 모두가 삼(杉), 회(檜), 소나무(松), 남(柟)이었는데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삼은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잣나무 그리고 사스래나무 중 한 가지 식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중 구상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등지의 남부지방에서만 분포하고 가문비나무와 잣나무는 제주도를 제외한 거의 전역에 분포한다.⁶¹⁾ 이 중 사스래나무(*Betula ermanii* Cham.)는 낙엽활엽수인 피자식물이므로 앞서 설명한 삼의 특성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지리산에 자라는 삼은 지리산 이외에 제주도에도 분포한다는 기록이

57) 강병찬, 「백두산의 식물군락 조사연구」, 『자원과학연구논문집』 제5권(1997), 327-335쪽; 김윤식, 「백두산의 자연」, 『식물분류학회지』 제19권(1989), 303-321쪽; 장남기·여성희·이선경·권혜련, 「백두산 서북사면 삼림의 수직분포」, 『한국생태학회지』 제14권(1991), 435-448쪽.

58)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II』, 『경도잡지·열양세시기·동국세시기』(2007).

59) 공우석, 앞의 논문(2006), 73-93쪽.

60) 한아름, 『남한지역 가문비나무의 개체군 구조와 갱신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3).

61) 공우석, 「한반도에 자생하는 침엽수의 종 구성과 분포」, 『대한지리학회지』 제39권(2004), 528-543쪽.

있어 제주도에는 자생하지 않은 가문비나무와 잣나무가 아닌 구상나무(*Abies koreana* Wilson)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杉), 회(檜), 소나무(松), 남(栂) 등 네 가지 식물 중, 송(松)은 일반적으로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old & Zucc.)를 지칭하나, 지리산 능선부에서 자라고 있다는 송은 잣나무(*Pinus koraiensis* Siebold & Zucc.)로 추정된다. 잣나무를 유희는 『물명고』에서 해송(海松)으로 불렀고, 김종직이 쓴 「두류기행록(頭流記行錄)」에서 고사목을 설명한 바로 다음에 “해송(海松)이 더욱 많으므로 지방민이 매년 가을이면 따서 공물(貢物)의 액수에 충당한다고 하는데”⁶²⁾라고 설명하고 있어, 송은 소나무가 아니라 잣나무를 의미한 것으로 추정되나, 추후 이 부분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회(檜)의 실체에 대해 정약용은 삼목을 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라고 주장하였고, 서유구는 삼 잎과는 조금 비슷하며, 잎이 매우 무성하여 가지의 가장자리가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삼과 회는 다른 식물로 간주되나, 회(檜)의 실체는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남(栂)을 남(楠)과 같은 글자로 녹나무를 의미하거나⁶³⁾, 또는 남(栂)은 매화나무를, 남(楠)은 메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⁶⁴⁾ 녹나무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대에서만 자랄 뿐 지리산에서는 자라지 않는 식물이며, 매화나무 역시 지리산에서 자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회나 남(栂)이 가문비나무나 사스래나무 중 한 종류로 생각되나, 회와 남(栂)의 실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육이 쓴 『유지리산록(遊智異山錄)』에는 “느티나무가 끝나면 삼회(杉檜)가 가득한데, 반이나 말라 죽어(過槐盡杉檜 叅半枯死)”라고 쓰고 있는데, 구상나무 다음으로 가문비나무가 지리산에 많고⁶⁵⁾, 가문비나무(*Picea jezoensis* Carr.)를 당회라고도 부르기에⁶⁶⁾, 회는 가문비나무로, 남(栂)은 사스래나무일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후 확정해야 할 것이다.

62) “海松尤多，土人每秋採之，以充貢額。”(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

63) 대한한사전편찬실, 『교학 한한사전』(주교회사, 2001).

64) 윤선량 편, 『민중대옥편』(민중서원, 1994).

65) 한아름, 앞의 논문.

66) 한심희, 「가문비나무의 자생지 생육환경과 고사 원인」, 『산림』 제4권(2013), 84-87쪽.

4. 삼은 전나무이다

옛 문헌에는 한편 지리산과 백두산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삼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삼이 잎갈나무나 구상나무가 아닌 또 다른 식물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옛 문헌에서 삼은 송(松)과 더불어 삼송(杉松)으로 많이 나오며, 삼목이라고도 되어 있다. 이 삼송에 대해 유희는 『물명고』에서 전나무라 하였는데, 중국에서도 전나무를 삼송 또는 삼목이라고 부르고 있어⁶⁷⁾ 제주도와 지리산 그리고 백두산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분포하는 삼은 전나무(*Abies holophylla* Maxim.)로 추정된다. 전나무는 전국에 걸쳐 자라며⁶⁸⁾, 개마고원 등지에는 커다란 숲을 이루고 있다. 전나무와 비슷한 분비나무(*Abies nephrolepis* Maxim.) 역시 삼송(杉松)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⁶⁹⁾, 지리산에서부터 북한 지방에 걸쳐 자라기 때문에 전나무와 분비나무를 구분하지 않고 삼으로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삼을 식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전나무는 평균적으로 100-1,500m에서 자라지만 분비나무는 500-2,200m에서 자라므로⁷⁰⁾ 고산성 식물인 분비나무보다는 낮은 곳에서도 자라는 전나무를 식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선 왕릉 중 광릉과 김포 장릉 등지에는 전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⁷¹⁾ 전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기록된 삼은 전나무로 추정된다.

5. 삼은 노간주나무이다

지금까지 추정된 삼의 실체는 잎갈나무, 구상나무, 그리고 전나무 등이었다. 그런데 이들 모두에 달리는 잎은 선형으로 다소 편평하기는 하나 잎 끝이 가시처럼 되지는 않으며, 노가자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도 않았다. 서유구가 쓴 『임원경제지』에는 “속세에서 노가자라는 것은 삼나무 종류이다(俗號老柯者, 乃杉類也)”라고 되어 있었는데, 노가자라는 이름

67) 『中國科學院中國植物志編輯委員會』, 앞의 책.

68) 공우석, 앞의 논문(2004), 528-543쪽.

69) 임록재, 『조선식물지』 1권(과학기술출판사, 1996).

70) 공우석, 앞의 논문(2006), 73-93쪽.

71) 고승관·구본학·최종희, 「조선왕릉 연지(蓮池)의 특성과 전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제29권(2011), 116-123쪽.

은 ‘한국고전종합 DB’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지 않았다. 노가자라고 부르면서 잎끝이 가시처럼 된 식물로는 노간주나무가 있다.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 Sieb. & Zuccarini)를 노가주나무, 노가자나무, 노간주향나무 등으로도 부르고 있어⁷²⁾ 노가자라는 식물은 노간주나무로 추정된다.

VII. 맺음말

이상을 정리하면, 옛날 문헌에서는 ‘삼(杉)’이라는 글자로 다섯 종류의 식물을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첫째, 관북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을 지칭할 때에는 잎갈나무(*Larix olgensis*), 둘째, 남부지방, 특히 지리산과 한라산 등지에 분포하는 식물을 지칭할 때에는 구상나무(*Abies koreana*), 셋째, 삼송(杉松) 또는 삼목(杉木)으로 지칭할 때에는 전나무(*Abies holophylla*, 분비나무를 포함), 넷째, 노가자나무라고 지칭될 때에는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 마지막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삼나무로 지칭할 때에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이다.

이처럼 삼이라는 글자 하나로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나라마다 다른 식물을 지칭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식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1927년에 출판된 『토명대 조선만식물자휘(土名對照鮮滿植物字彙)』에도 삼은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와 잎갈나무(*Larix dahurica*=*Larix olgensis*) 두 종류의 식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⁷³⁾ 식물분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식물 이름 하나로 여러 종류의 식물을 지칭한 사례는 많이 발견되는데, 영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sycamore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1) 영국에서는 큰단풍나무, 2) 미국에서는 플라타너스의 일종, 그리고 3) 시리아 및 이집트에서는 무화과나무의 일종”으로 설명되어 있다. 즉, 영국에서는 단풍나무속(*Acer*), 미국에서는 플라타너스속(*Platanus*)

72) 이우철, 앞의 책(2005).

73) 한글박물관 홈페이지에 있는 ‘토명대조 선만식물자휘’ 부분임.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에서는 무화과나무속(*Ficus*) 식물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글자가 이 나라 저 나라, 또는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니면서 비슷한 식물들에 적용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풀이되는데, 실제로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무화과 종류의 잎을 보면 비슷하게 생겼다. 삼이라는 이름도 정확하게 식물을 구분할 수 없었던 일반인들이 다소 비슷하게 보이는 이 식물, 저 식물에 붙이면서 이처럼 다양한 식물에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옛 문헌에 소개된 한자 식물 이름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식물 이름이 적용된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한 다음, 그 실체를 규명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지식을 알지 못했겠지만 유희가 쓴 『물명고』를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 차이를 잎이 모여 달리는 수, 즉 소나무는 2장, 잣나무는 5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식물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옛 문헌에 나오는 식물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찬, 「백두산의 식물군락 조사연구」. 『공주대학교 자원과학연구논문집』 제5권, 1997, 327-335쪽.
- 고승관·구본학·최중희, 「조선왕릉 연지(蓮池)의 특성과 전형」.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9권, 2011, 116-123쪽.
- 공우석, 「한반도에 자생하는 소나무과 나무의 생물지리」. 『대한지리학회지』 41권, 2006, 73-93쪽.
- _____, 「한반도에 자생하는 침엽수의 종 구성과 분포」. 『대한지리학회지』 39권, 2004, 528-543쪽.
- 국립민속박물관, 『조선대세시기 III』. 「경도잡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국립민속박물관, 2007.
- 김윤식, 「백두산의 자연」. 『식물분류학회지』 19권, 1989, 303-321쪽.
- 김현·송미장, 『생물유전자원 전통지식의 이익공유와 산업화』, 월드사이언스, 2011.
- 대한한사전편찬실, 『교학 한한사전』. (주)교학사, 2001.
- 서유구 저, 박순칠·김영 역, 『임원경제지』 「만학지 02」. 소와당, 2010.
- 신경철. 「物名考의 語彙 考察」. 『한국언어문학』 25권, 1987, 41-66쪽.
- 신현철, 「전통문화 이해를 위한 식물의 분류학적 실제 규명 필요성-산수유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전통문화연구』 13호, 2014, 185-208쪽
- 신현철·홍승직·기호철, 「전통지식 활용을 위한 생물자원 실제 규명-樗의 번역 사례와 한자 식물명 번역에 있어서 제안」. 『한국 산림전통지식 현황과 발전방향』, 83-98쪽, 국립산림과학원, 2013.
- 여찬영, 「나무명칭어 한자 자석 연구-떡갈나무류를 중심으로」. 『어문학회지』 74권, 2001, 21-43쪽.
- _____, 「아가위나무류 한자 자석 연구」. 『어문학회지』 77권, 2002, 25-46쪽.
- 윤선량 편, 『민중대옥편』. 민중서원, 1994.
- 이기문, 「어원 탐구 승기악탕(勝妓樂湯)」. 『새국어생활』 17권 1호, 2007, 115-121쪽.
- 이우철, 『원색한국기준식물도감』. 아카데미서적, 1996.
- _____,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 임록재, 『조선식물지』 1권. 평양: 과학기술출판사, 1996.
- 임행진, 「삼나무 산지 간 성장비교」. 『순천대학논문집』 4호, 1985, 59-63쪽.
- 장남기·여성희·이선경·권혜련, 「백두산 서북사면 삼림의 수직분포」. 『한국생태학회지』 14권, 1991, 435-448쪽.
- 정약용 저, 정해염 역, 『아언각비, 이담속찬』. 현대실학사, 2005.

정은주, 「실학과 지식인의 물명에 대한 관심과 『物名類解』」. 『한국실학연구』 17권, 2009, 175-208쪽.

정학유 저, 허경진·김행태 역, 『시명다식』. 한길사, 2007.

진현오·전상근, 「삼나무 산지 간 성장형질 및 영양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논문집 자연과학편』 23권, 1994, 727-741쪽.

한심희, 「가문비나무의 자생지 생육 환경과 고사 원인」. 『산림』 2013권 4호, 2013, 84-87쪽.

한아름, 『남한지역 가문비나무의 개체군 구조와 갱신 특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홍승직·신현철,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를 통한 《詩經》의 새로운 이해」. 『중국어문논총』 15집, 1998, 281-295쪽.

홍윤표, 「유희의 물명고」. 『어문연구』 28권, 2000, 277-304쪽.

堀田満・緒方健・新田あや・星川清親・柳宗民・山崎耕字, 『世界有用植物事典』. 東京: 平凡社, 1989.

佐竹義輔・原寛・亓理俊次・富成忠夫, 『日本の野生植物, 木本 I』. 東京: 平凡社, 1986.

山林廳 林業研究院, 『韓國樹木圖』. 1992.

裴盛基·淮虎銀, 『民族植物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7.

朱春慧, 「《詩經》草本植物研究」. 國立台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中國科學院中國植物志編輯委員會, 『中國植物志』 第7卷. 北京: 科學技術社, 1978.

Fung, L. E., "Cunninghamia lanceolata (Chinese fir): a study of its potential as a commercial plantation species in New Zealand." A thesis of PhD. in the University of Canterbury, 1993.

Matsumoto, Y., H. Shigenaga, M. Satoru, J. Nakakura and H. Taoda, "Mapping of Japanese Cedar (*Cryptomeria japonica*) Forests Vulnerable to Global Warming in Japan." *Global Environmental Research*, Vol. 10, 2006, pp. 181-18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한국국학진흥원 <http://www.koreastudy.or.kr/main/main.action>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국 문 요약

이 글에서는 고전에 나오는 한자 식물명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여 우리의 고유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흔히 삼나무로 번역되는 삼(杉)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옛 문헌에서는 ‘삼’이라는 글자로 다섯 종류의 식물을 지칭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첫째, 관북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을 지칭할 때에는 잎갈나무(*Larix olgensis*), 둘째, 남부지방, 특히 지리산과 한라산 등지에 분포하는 식물을 지칭할 때에는 구상나무(*Abies koreana*), 셋째, 삼송(杉松) 또는 삼목(杉木)으로 지칭할 때에는 전나무(*Abies holophylla*, 분비나무를 포함), 넷째, 노가자나무라고 지칭될 때에는 노간주나무(*Juniperus rigida*), 마지막으로 일본에 있는 것을 삼나무로 지칭할 때에는 삼나무(*Cryptomeria japonica*)이다.

이처럼 삼이라는 글자 하나로 한자 문화권이었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나라마다 다른 식물을 지칭하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역마다 다른 식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옛 문헌에 소개된 한자 식물 이름의 정확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식물 이름이 적용된 사례들을 모으고 분석한 다음, 그 실체를 규명하는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분류학과 관련된 지식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희가 쓴 『물명고』를 보면, 소나무와 잣나무 차이를 많이 모여 달리는 수, 즉 소나무는 2장, 잣나무는 5장으로 구분하고 있어, 어느 정도는 식물을 구분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옛 문헌에 나오는 식물의 실체에 대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투고일 2015. 6. 1.

심사일 2015. 7. 20.

게재 확정일 2015. 9. 3.

주제어(keyword) 삼(Sam), 식물명(plant name), 분류학적 실체(taxonomic identity), 옛 문헌(old Korean literatures)

Taxonomic Identity of Chinese Plant Name Sam in Korean Classics

Shin, Hyun-chul · Ki, Ho-chul · Hong, Seung-jic

The Chinese letter Sam were frequently recorded in old Korean literatures, and until now in Korea this letter is interpreted as *Cryptomeria japonica*, the endemic species in Japan. However, this letter is considered *Cunninghamia lanceolata*, an endemic species in China, and both species were not indigenous in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re were the many confusions in the re-interpretation of Sam in the old traditional knowledges. To clarify the taxonomic identities of Chinese letter Sam recorded in old Korean books, the instances of Sam were investigat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Sam were inferred from the DB related to Korean traditional knowledge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he Chinese letter Sam recorded in old Korean literature was used to describe at least 5 species. At first, Sam distributed in the northern part of Korean peninsula including Mt Paekdu was *Larix olgensis*. At second, Sam growing in Mt Chiri and Jeju Island was *Abies koreana*, and those distributed in whole country and planted frequently was *Abies holophylla*. At fourth, Sam having the prickly-like leaves and called No-ga-ja was *Juniperus chinensis*, and finally, Sam recorded in the voyages of Japan was *Cryptomeria japonica*.